

# 조선시대 빈풍칠월도의 도상적 기원과 기능 연구

김현지\*

- I. 머리말
- II. 중국 시경도와 빈풍도 제작의 전개
- III. 조선 전기 기록상의 빈풍칠월도의 작례
- IV. 조선 후기 빈풍칠월도 병풍의 구성과 도상적 특징
- V. 맺음말

## I. 머리말

邠風七月圖는 『詩經』의 國風 중 邠風篇의 ‘七月’ 시를 전거로 하여 그린 그림이다. 『시경』의 빈풍편은 중국 周나라의 발상지로 여겨지는 邠 땅에 유행한 노래 모음으로, 그 중에 ‘칠월’ 시는 농민의 생활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月令歌의 일종이며, 백성의 노고와 고충을 임금에 알 수 있는 자료로 받아들여졌다. 『시경』은 漢代 이후 유학자들에게 周公의 정치철학이 담긴 것으로 받아들여져 중시되었다. 시경도는 중국 송대에 『시경』의 삽도로 그려지기 시작하다가 점차 빈풍칠월도가 『시경』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발전하였다.

조선 왕실에서도 빈풍칠월도는 ‘王道政治’라는 유교이념의 대표적인 시각적 표상으로 중요시되어 자주 거론되었다. 조선시대 빈풍칠월도는 선행연구에서 궁중의 감계화로서, 그리고 풍속

---

\* 홍익대학교

화의 기원으로서 주목되어 고찰된 바 있다.<sup>1</sup> 그동안의 연구는 빈풍칠월도에 그려진 농민의 생활 장면이 주목하고 이러한 장면이 조선후기에 발전한 풍속화와 어떠한 연관성상에 있는지 그 연결 지점에 주목했다면, 필자는 이러한 그림이 백성의 일반화된 일상을 그린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의미부여된 특별한 날의 행위를 그린 것이며, 이는 세시의례의 제의성과 연관된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시경』 빈풍편의 칠월 시를 시각화한 여러 화제들, 즉 밭갈이, 모내기, 뽕잎 따기, 겹옷 만들기, 수확, 수렵, 제사와 잔치 등의 주제는 고대로부터 사회를 유지하는데 중요시되며 전승되어 온 특별한 시기에 행해진 상징적인 행사들이었다. 조선은 국초부터 19세기까지 빈풍칠월의 화제를 궁중에서 중요시하며 꾸준히 제작되었는데 이 점은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중국에서 비롯된 빈풍칠월도가 조선시대 궁중에서 중요시된 이유는 그 제작목적과 사회적 기능의 해명과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 궁중에서 제작된 빈풍칠월도가 병풍 형식으로 제작된 점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회권이나 화첩과는 달리 특정한 공간에 펼쳐지는 병풍은 대개 특정한 의례에 사용되었는데, 빈풍칠월도 화제가 갖는 다양한 상징성과 의미는 다양한 기능으로 연결되어 궁중의 행사와 의례에 활용되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조선시대 빈풍칠월도 도상의 기원으로서 중국 시경도 제작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빈풍칠월도가 궁중에서 병풍으로 제작되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게 되는 과정을 기록상의 작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현존하는 작품을 통하여 그 도상적인 특징과 기능적 의미에 주목하여 살펴봄으로서, 조선시대 유교 이념의 정치성과 연관된 감제화로서의 교화적 기능, 내농작, 친경의례와 같은 국가의 농경의례와 연관된 豊年을 기원하는 제의적 기능, 그밖에 장수를 기원하는 축수화로서의 기능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그 의의를 종합해 보고자 한다.

## Ⅱ. 중국 시경도와 빈풍도 제작의 전개

『詩經』은 2500여 년 전 민간에서 노래된 民謠와 종묘에서 신에게 제사지낼 때 부르던 頌歌

<sup>1</sup> 홍선표, 「朝鮮時代 風俗畫 發達의 理念的 背景」, 『風俗畫』 韓國의 美 19(1985), pp. 182-187; 정병모, 「鬮風七月圖 流 繪畫와 朝鮮朝 後期 俗畫」, 『考古美術』 174(1987), pp. 16-39; 同著, 「朝鮮時代 後半期 風俗畫의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1), pp. 47-50; 김영옥, 「조선시대 王室 鑑戒畫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2012), pp. 13-30.

를 실은 中國 古代 詩歌集이다.<sup>2</sup> 『시경』의 위상은 공자의 시대를 지나 유학이 漢代 이후로 지배 이념이 되면서 유교경전의 하나로 존중되었으며, 동아시아 유교문화권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시경』의 시들은 당시 문인들에게 정서를 순화하는 기본 교양이자 다양한 사물을 인식하는 학문의 기본이자 전범으로 받아들여졌다. 한대 유학자들에게 이미 경전의 권위는 제도화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시대 배경 속에서, 『시경』은 유교 철학의 수사학의 본보기가 되었다.

이처럼 시경도의 시작은 경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인 삽도로 시작되었다. 『시경』의 내용을 도해한 그림을 통칭하여 ‘詩經圖’라고 하며, ‘毛詩圖’라고도 한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상의 기록은 東晉 明帝(299-325/r. 323-325) 시기의 작례이다.<sup>3</sup> 장언원(張彦遠, 815~879)은 『歷代名畫記』에서 晉 나라 明帝(晉帝)의 〈毛詩圖〉를 본 적이 있다고 하였고, 옛 목록 중에는 〈鬪詩七月圖〉와 〈毛詩圖〉 2점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기록하였다.<sup>4</sup>

南宋代에는 高宗(r. 1127~1162), 孝宗(r. 1162~1189) 양대에 걸쳐서 馬和之(1130?~1170?)로 하여금 『시경』 300여 편 전체를 도해하는 것이 시도되었다.<sup>5</sup> 경전의 서사적인 내용을 삽도로 그리는 경우에, 경전의 내용의 일부분에서 畫意를 차용하여 그리는 형식이 일반적인 것이었으며, 이처럼 경전 전체를 회화화하며, 연작으로 그리는 형식은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방식이었다.<sup>6</sup> 전자

<sup>2</sup> 『시경』은 유교경전 五經 중의 하나이며, ‘詩’, ‘詩三百’, ‘毛詩’, ‘周詩’라고도 칭한다. 원래는 舞踊과 樂曲을 수반한 歌謠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史記』의 ‘孔子世家’에는 서주시대의 공자가 수집한 당시의 民謠와 頌歌 3000편 가운데 311편(이 중 6편은 소실되어 305편만 전함)을 골라 엮은 것이라 전하지만, 공자가 직접 시들을 편집하여 묶었다는 견해는 현대의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다. 현재 우리가 접하는 『시경』은 진시황 분서갱유로 사라진 경전을 漢代에 재정비하면서 정리된 것 중에 前漢의 毛亨, 毛萇이 전한 것으로, 『시경』을 ‘毛詩’라고 부르는 것도 여기서 비롯되었다. 매 편의 머리에 해제를 붙인 ‘毛詩序’는 공자 이후 『시경』에 실린 시들을 교화의 의미로 해석하던 경향을 더욱 굳혔다고 평가된다. ‘毛詩序’에 後漢의 鄭玄(127-200)의 주석인 箋註를 덧붙인 것이 『毛詩鄭箋』이며, 이후 南末의 朱子(朱熹, 1130-1200년)가 ‘毛詩序’에 주석을 덧붙인 것이 오늘날 일반적으로 많이 번역되어 접하는 『詩經集傳』이다.

<sup>3</sup> 張彦遠, 『歷代名畫記』 卷5, 晉二十三人, 明帝司馬紹, ‘彦遠曾見晉帝毛詩圖’; 장언원 저, 조송식 역, 『歷代名畫記(下)』 (시공아트, 2008), p. 44. ‘鬪風圖’나 ‘毛詩圖’라는 제목의 현존하는 그림은 12세기가 상한이므로, 늦어도 4세기 초반에 동일한 화제의 그림들이 이미 그려지고 있었다면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목의 삽도들은 아마도 博物志와 같이 실용적 목적의 도서에 흔히 실리는 간략한 도해를 지칭할 가능성이 크다.

<sup>4</sup> 『唐朝名畫錄』 妙品 중에는 唐의 文宗이 ‘晉 明帝朝의 화가 衛協(4세기)이 그린 〈毛詩圖〉가 草木鳥獸, 古賢君臣의 像이 眞을 얻지 못했다’면서 程脩己(ca. 804~863)에게 〈毛詩圖〉를 그리게 하였다고 한다. 古原宏伸, 『詩經圖と孝經圖』, 『美術史』 72(東京: 美術史學會, 1969), p. 109.

<sup>5</sup> 남송대 시경도 제작에 관한 서술은 다음의 문헌이 상세하다. Julia K. Murray, *Ma Hezhi and the Illustration of the Book of Od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黎晟, 『馬和之《毛詩圖》研究』, 上海大學 博士學位論文(2014).

<sup>6</sup> 古原宏伸은 경전 전체를 연작으로 회화화하는 방식은 시경도와 효경도 뿐이라고 하였다. 古原宏伸, 앞의 논문, p. 109.





도 1 傳 馬和之, 《빈풍도》卷의 '칠월' 부분, 南宋 12세기 중엽, 絹本水墨淡彩, 25.7×624cm, 北京故宮博物院(故宮博物院 编, 『故宮博物院藏品大系·绘画编』: 第2卷 宋(北京: 紫禁城出版社, 2008), 圖39)

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구성은 『시경』 빈풍편 중의 '七月'을 비롯한 7편의 시를 각 편의 그림과 함께 번갈아 배치하였다(도 1). 그 중에 '七月' 시를 묘사한 첫 장면을 살펴보겠다. 칠월 시는 전체 8장으로 구성되며, 『시경』 중에서 가장 긴 시이다(별첨의 부록 참조). 두 사람이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데, 이는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농사의 시기를 알 수 있음을 의미한다(도 2). 이 시의 첫 구절인 '七月流火'의 '火'는 고대의 '大火', 즉 火星을 의미한다.<sup>9</sup> 화성은 6월에 正南 방향에 나타나서 7월에는 점차 서쪽으로 이동한다. '七月流火'의 의미는 이제 곧 여름이 물러가고 날씨가 쌀쌀해진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화가는 해당 계절의 별자리를 화폭에 사실적으로 묘사한다는 의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별자리가 계절과 상관없이 묘사되었으며, 별들 사이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천문도의 도해에서 보이는 별자리 표현을 밤하늘에 그대로 옮겨 놓았다.<sup>10</sup> 울동감 있는 구름으로 화면을 구획하고 그 왼쪽에는, 2월 봄의 밭갈이 장면과 일꾼들 먹일 새참을 나르는 장면, 그리고 이를 지켜보며 기뻐하는 勸農官이 묘사되었다. 이는 칠월 시 제1장의 내용을 도해한 것이며, 오른쪽 상단의 봄날 뽕잎따기는 제2장의 내용이다(표 3 참조). 마지막의 10월 추수 후 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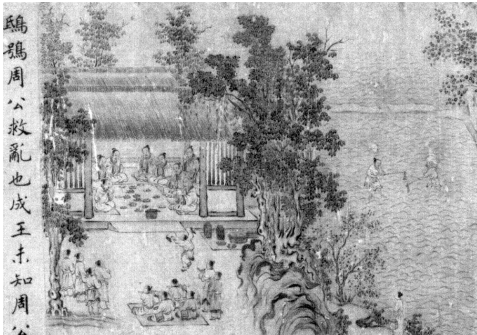
도 2 傳 馬和之, 《빈풍도》卷 부분, 칠월 시의 제1장.

<sup>9</sup> '大火'는 고대인들이 일찍이 발견한 별 중의 하나이다. 전설에 의하면 顛頊 제왕시대에 '대화'를 관측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火正(혹은 祝融)'이라는 관직이 있었으며, 『左傳』에는 '화정이 시간을 기록한다'고 하였다. 학자들에 의하면 '대화'를 관측하여 춘분을 정한 시기는 기원전 2,400년 전후의 일이라고 한다. 載吾三 저, 박영순 역, 『고사성어 속 과학(원제: 成語中的古代科技/2003)』(이지북, 2006), pp. 204-207.

<sup>10</sup> 梨旻, 앞의 논문, pp. 171-172.

〈표 3〉 『시경』 빈풍 칠월 시의 구성과 내용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7월: 별똥별이 서쪽 9월: 겹옷을 준비 11월: 동지날 찬바람 12월: 선달 추위 1월: 쟁기손질 2월: 밭갈이 새참과 권농관	7월: 별똥별이 서쪽 9월: 겹옷을 준비 춘일: 따뜻한 햇살, 피꼬리 울기시작, 뽕잎따기, 쑥 캐기, 공자님께 시집가고 싶네.	7월: 별똥별이 서쪽 8월: 갈대 베기 3월: 누에치기, 뽕나무 가지치기 7월: 왜가리 울다. 8월: 길쌈, 염색, 공자님 바지짓기	4월: 아기풀 이삭 5월: 매미 울다. 8월: 이른곡식 베기. 10월: 낙엽 지다. 11월: 동짓달 담비사냥. 공자님 갓옷감 마련. 12월: 선달 사냥. 큰짐승은 임금께 바침.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5월: 여지 울다 6월: 배짱이 울다 7월: 귀뚜라미 들에 8월: 처마 밑에 9월: 문 앞에 10월: 침상 밑으로 쥐불, 집수리	6월: 아가위와 머루 따먹기 7월: 아욱과 콩 삶아먹기 8월: 대추 털기 10월: 벼 베어 볍술로 노인의 대접 7월: 참외 따먹기 8월: 박 타기 9월: 깨 털고 썬바귀 깨고 가족나무땀감 마련하여 농부대접	9월: 채소밭에 타작마당 만들기 10월: 메기장, 차기장, 벼, 삼, 보리 수확. 띠 풀 손질, 새끼꼬아 지붕 임.	12월: 얼음깨기. 1월: 얼음 창고넣기 2월: 이른아침 염소, 부추로 제사지내고 얼음창고 열기. 9월: 된서리 내림. 10월: 타작마당치움. 염소 잡아 술로 잔치 벌임, 술잔 들어 임금의 만수무강 기원.



도 3 傳馬和之, 《빈풍도》卷 부분, 칠월 시의 제8장.

지내고 잔치하는 장면은 마지막 제8장의 내용을 도해한 것이다(도 3). 그 중에 마지막 8장의 추수 후에 풍년을 축하하고 감사의 제사(十月祭)를 지내고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잔치를 벌이는 내용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으로 묘사되었다.<sup>11</sup> 칠월 시의 마지막 장은 사회구성원 상하 간에 화합과 周왕조의 기초를 다진 王業을 칭송하는 장면으로 중요시된 장면이며 『毛

<sup>11</sup> 칠월시의 여러 장면 중에 선택된 화제를 보면, 크게 '봄의 파종과 뽕잎따기'와 '가을의 수확과 제사'로 압축된다. 세 시의례에서 봄에 파종하며 한 해 농사의 풍작을 예측하고, 가을에 감사의 보답을 중시하는, 즉 파종기(봄)과 수확기(가을)에 일 년 중의 세시의례가 집중되어 있는 현상과도 일치한다. 이러한 점은 빈풍칠월도가 시간상의 순서로 배열된 이후에도 각 달을 균등히 묘사하려고 치중하기 보다는 봄, 가을의 농경활동을 중심으로 화제가 구성되는 점에서 조선시대까지 그 기본적인 맥락을 이어갔다고 볼 수 있다.



도 4 작자미상(佚名 傳馬和之), 《빈풍칠월도》卷 부분, 南宋~元 (13세기 중엽~14세기 중엽), 紙本水墨, 28.7×48.4cm, Freer Gallery of Art (<http://www.asia.si.edu/SongYuan/F1919.172/F1919.172.asp>)

詩序의 입장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sup>12</sup> 이러한 빈풍칠월시와 빈풍칠월도가 지닌 유교이념성은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프리어갤러리(Freer Gallery of Art) 소장의 〈翺風七月圖〉권은 칠월시의 1장부터 8장까지 각 장을 대표하는 이미지를 선택하여 회권을 구성하였다. 제1면은 2월의 농기구 손질과 새삼나르기 와 권농관이, 제2면은 봄날의 뽕잎따기, 제3면은 8월의 길쌈과 바지짓기, 제4면은 12월 사냥하는 모습 등이 묘사되었다(도 4).<sup>13</sup> 역시 시와 그림을 번갈아 배치하였고, 남송대의 서예가 곁들여진

<sup>12</sup> ‘七月’ 시를 어떠한 관점에서 해석하였는가하는 詩經觀은 시각 이미지의 재현방식에 관여하여 이를 드러낸다. 8장의 해석을 두고 ‘毛詩序’와 鄭玄의 ‘箋註’의 주석이 서로 충돌하는데, 이 그림의 화가는 ‘毛詩序’의 해석에 따른 것이다. 남송 황실에서 이러한 경전의 시각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인 목적은 금나라에 의해 유린당한 송황실의 정통성과 실추된 권위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들의 정치적 목적과 연관 지어 해석된다. 화원의 화가는 이미지의 재현에 있어서 개인적 선택보다는 주어진 임무에 충실해야 했을 것이다.

<sup>13</sup> 제5면은 10월의 추위로 집안으로 들어옴, 제6면은 10월의 진흙 발라 집수리, 제7면은 10월의 새끼 꼬아 지붕이끼, 제8면은 12월 얼음 깨어 창고 저장이 묘사되었다. 이는 칠월 시의 1장부터 8장 중에 대표적인 장면 하나씩을 골라서 묘사한 것인데, 대체로 이른 봄부터 한 겨울의 시간 순서로 배열할 수 있는 장면들을 뽑은 것이어서 얼핏 보면 ‘월령식’ 배열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시경의 텍스트의 순서를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다. 제4면에 겨울의 대표적인 장면인 수렵이 묘사된 것이 가장 특징적이다. 수렵은 빈풍칠월도의 겨울장면 중에 ‘얼음꺼서 저장하기’와 함께 필수적으로 묘사된 대표이미지인데, 텍스트의 장별로 배열하다보니 4번째 면에 구성되었고 따라서 계절의 순서와는 모순된다. 필자는 이러한 시간적 문제를 해결하여 여러 장면을 일 년 중의 시간 순서로 합리적으로 재배열하여 구성된 형식을 ‘월령식’ 빈풍칠월도 라고 칭하였다. 즉 텍스트상의 순서를 무시하고 제4면의 수렵장면(제4장의 내용)이 제8면의 겨울로 재배치된 것이다. ‘칠월’ 시는 “몇 월에는 무슨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매 달의 활동을 기록하는 서술방식이기 때문에 시의 성격상 ‘月令歌’라고 칭해지지만, 이 시는 화자도 여러 명이 반복되는 내용도 많으며 전체적으로 시간상의 일목요연한 구성은 아니다(표 3 참조). 한 화면에 여러 풍속 장면이 담기고, 또 다시 여러 장의 화면이 병풍 등으로 구성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합리적인 시간 순서상으로 재구성하여 배열된 것을 ‘월령식’ 빈풍칠월도라고 칭한 것으로, ‘칠월’ 시가 ‘월령가’의 성격이라는 점은 구분되어야 한다.



도 5 작자미상, 《빈풍칠월도》권 중 제6폭, 청 18-19세기, 견본채색, 57.3×316cm, 국립중앙박물관

여타의 마화지 전칭작들과 비교했을 때 인물의 비례와 묘사법에서 차이가 나서 원대 이후의 모사본으로 추정된다. Julia K. Murray는 이 작품이 다른 작품들과는 달리 종이에 그려졌으며, 배경이 비교적 생략되고 인물들을 거의 윤곽선 위주로 묘사하여 밑그림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었거나 미완성의 그림일 가능성을 논한 바 있다.<sup>14</sup>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작자미상의 〈빈풍칠월도(빈풍도)〉권은 원대 왕진봉의 그림을 청대에 입묘한 견본채색의 작품으로 빈풍편 칠월 시의 전체 8장의 각 장 내용을 모두 묘사하였다(도 5). 앞서 살펴본 프리어갤러리 소장의 빈풍칠월도는 각 장에서 대표적인 한 장면씩만을 선택하여 묘사한데 반해서, 이 작품은 각 장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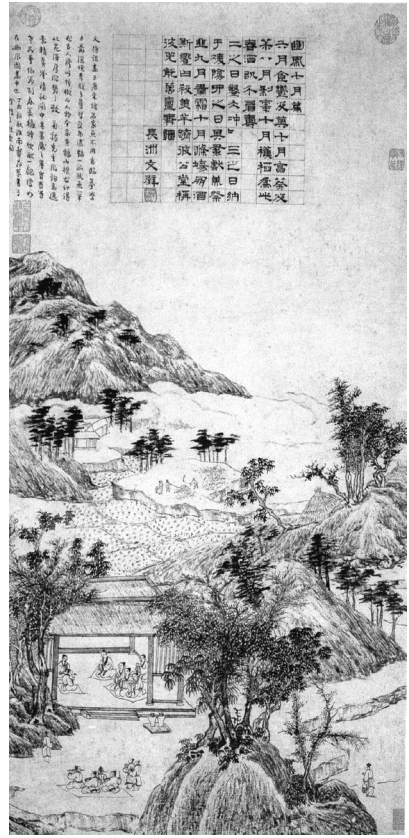


도 6 이방운, 《빈풍칠월도》중 제6면, 지본 답채, 25.6×20.1cm,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시대 풍속화』 특별전 도록, 국립중앙박물관, 2002, p. 85)

<sup>14</sup>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소장의 또 다른 소장품인 작자미상(佚名 傳李公麟)의 〈鬪風七月圖〉卷(南宋, 13세기)과 The Cleveland Museum of Art 소장의 작자미상(佚名 傳馬遠)의 〈鬪風七月圖〉卷(南宋, 13세기)은 프리어갤러리 소장의 그림과 도상적인 유사성을 보여주는 장면이 많다.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소장본의 경우 제사나 귀뚜라미 장면을 상세히 묘사한 점이나 시에는 없는 貢納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점은 독특하며, 텍스트의 순서와 대체로 일치하며, 장면들이 분리되지 않고 연속되는 화면구성 방식이다. 특히 클리블랜드미술관 소장의 〈빈풍칠월도〉는 1741년 건륭의 화기가 있으며, 비단에 채색을 가한 그림이다. 두 작품 모두 프리어갤러리 소장 그림보다 더 많은 칠월 시의 풍속장면이 담겨있다. 두 작품 모두 이공린과 마원의 작품으로 오랜 동안 전칭되어 왔으나 13세기 이후 송, 원대에 유행한 빈풍칠월도의 古式의 도상적 특징을 보여주는 예로 중요시된다. 이들 작품 간의 제작의 선후관계와 인장의 진위여부, 도상적 차이를 밝히는 과정 등은 향후 과제로 요구된다.

을 균등한 비중으로 다루었고 활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점이 특징이다. 월령식 구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으며, 시경 원전의 내용과 순서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제6장을 묘사한 그림을 예로 들어보면, '칠월에 아욱이랑 콩 삶아먹기', '칠월에 참외 먹기', '팔월에 대추 따기', '팔월에 박 따기', '구월에 삼씨 줍기', '구월에 썸바귀 캐기' 등 여러 달의 활동을 한 장면에서 묘사하였다. 각 세부의 모습을 살펴보면, 시구에서 묘사된 인물들의 행위를 구체적인 상황묘사로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텍스트의 도해에 가장 충실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sup>15</sup> 지금까지 살펴본 세 작품은 회권 형식에 텍스트와 삽도를 번갈아 배치하여,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설명하는데 삽도로서의 기능에 충실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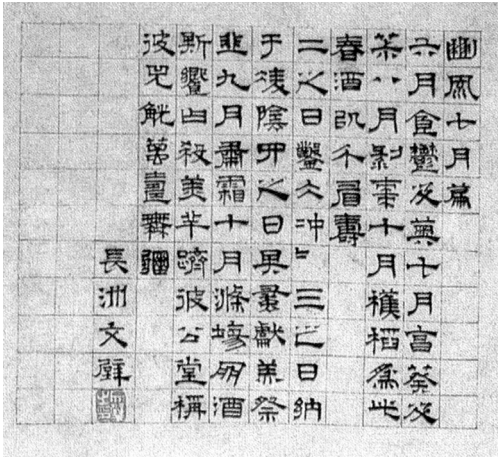
중국에서 시경도의 역사는 경전의 부수적인 삽도로 시작하였지만, 빈풍칠월도는 원대와 명대에는 일부 화제가 단일 화제로 독립하여 제작되기도 하였다. 上海博物館 소장의 文徵明的 <豳風圖>軸은 빈풍칠월의 화제가 민간에서 장수를 축원하는 축수화로 제작된 예를 보여준다(도 7).<sup>16</sup> 화면 중앙에는 수확을 마친 텃빈 논과 타작을 하고 있는 무리들이 작게 묘사되었고, 전경에는 마당에서 벌여지는 춤과 연주를 실내에서 감상하며 술잔을 받아든 인물들이 묘사되었다(도 8). 화면 상단의 제시는 빈풍편 칠월 시 중에 제6장과 제8장의 내용을 그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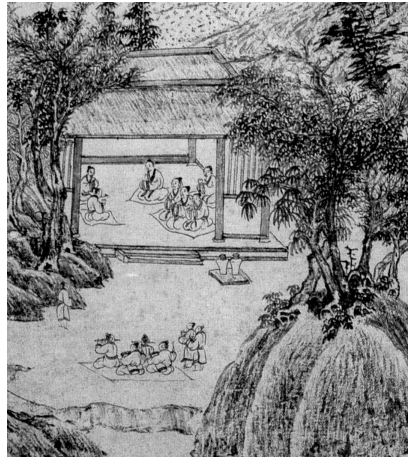
도 7 文徵明, <빈풍도>軸, 紙本水墨, 111,7x52,7cm, 上海博物館(蘇州博物館)編, 『中國畫家 古代卷 文徵明』, 故宮出版社, 2014, p. 292)

<sup>15</sup>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이방운(李昉運, 1761~?)의 《빈풍칠월도》8면은 그 형식에 있어서 텍스트의 도해에 근거한 그림으로 빈풍칠월도는 모두 월령식으로 그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도 6). 작은 화첩 크기에 수묵담채로 간략한 필치의 문인 취향으로 그려진 이 그림은 빈풍칠월이라는 동일한 화제를 가지고 묘사되었지만 궁중에서 성행한 채색 위주의 병풍과는 다른 면모와 지향성을 보여준다. 『시경, 빈풍 칠월시의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각 장마다 일일이 설명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인물들 행위의 근접 묘사 보다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관망 하듯 산수와 어우러진 농가의 전반적인 분위기 묘사에 치중하였다.

<sup>16</sup> 古原宏伸, 앞의 논문, p. 117; 馬迎珺, 『詩經文圖關係研究』, 南京大學 碩士學位論文(2014), pp. 8-9.



도 8 文徵明, <빈풍도>軸의 상단 부분



도 9 文徵明, <빈풍도>軸, 하단 부분

옮겼다(도 9).<sup>17</sup> 제6장의 전반부인 “유월에는 아가리와 머루 따 먹고, 칠월에는 아욱과 콩 삶아 먹고 팔월에는 대추 따고, 시월에는 추수하고 이것으로 春酒를 빚어 노인의 장수를 축원하네(…十月獲稻爲此春酒以介眉壽)”라는 부분과 제8장의 전체인 “설달에는 탕탕 얼음 깨어, 일월에는 이것을 얼음 창고에 넣네. (중략) 시월에는 타작 마당 치운다네. 두어통 술로 잔치 벌이고 새끼 염소 잡아 안주 마련하네. 공당에 올라 술잔을 들어 만수무강을 축원하네(…稱彼兕觥 萬壽無疆)”라는 내용을 옮겨 적었는데, 이는 장수와 관련된 두 부분을 의도적으로 뽑아서 재구성한 것으로, 이처럼 <빈풍칠월도>가 장수를 기원하는 축수화로도 기능하였음을 말해준다.

빈풍칠월의 시각 이미지가 축수화로 제작된 더 이른 시기의 기록상의 작례는 元代 郭畀의 <鬮風介壽圖>(元郭畀鬮風介壽圖一軸)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18</sup> 곽비의 <빈풍개수도>는 현재 작품은 남아있지 않지만, 기록을 통하여 두 노인이 중앙에 앉아 있고 그 앞에는 과일 등의 축수연상이 차려져 있으며 옆에 아들과 며느리가 시립하고 있는 화면 구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sup>17</sup> 文徵明, <鬮風圖>軸, “鬮風七月. 六月食郁及奠, 七月享葵及菽. 八月剝棗, 十月獲稻. 爲此春酒, 以介眉壽. 二之日鑿冰沖中, 三之日納於凌阻, 四之日其蟄, 獻羔祭韭. 九月肅霜, 十月滌場. 朋酒斯饗, 日殺羔羊, 躋彼公堂, 稱彼兕觥, 萬壽無疆. 長洲文壁.” 鈐: “文壁之印”白文印, “徵仲”朱文印.(苏州博物館編, 『中國畫家古代卷 文徵明』(故宮出版社, 2014), p. 292. 참조.)

<sup>18</sup> 『欽定石渠寶笈三編』, 長春園獅子林藏, 元郭畀鬮風介壽圖一軸. : 本幅絹本, 縱四尺七分. 橫一尺五寸二分. 設色畫. 几列肴核, 二老並坐舉觥, 子婦侍. 自書鬮風句. 六月食郁及奠, 七月享葵及菽, 八月剝棗, 十月獲稻, 爲此春酒, 以介眉壽. 鈐印二. 朱方郭畀. 郭畀天錫; 『續修四庫全書』1080冊, 子部, 藝術類(上海古籍出版社, 1995), p. 437.

에 인용된 시구는 빈풍 칠월 시의 제6장의 시구의 일부(“六月食鬱及藟, 七月亨葵及菽, 八月剝棗, 十月穫稻, 為此春酒, 以介眉壽”)이다. 한편 명대의倪元璐의 기록(《鬪風八圖贊爲蔣八公宮庶太夫人壽》)을 통해서도 《鬪風八圖》가 장수를 축원하는 용도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19</sup> 이처럼 빈풍칠월도는 오랜 세월동안 회화로 거듭 제작되면서 새로운 의미와 기능을 추가하며 재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20</sup>

빈풍편 칠월 시는 주공이 주나라 왕조를 창업하는 힘든 시기에 지은 시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왕업을 칭송하는 그림으로 받아들여졌다. 칠월 시의 마지막에 수확을 마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린 후 공당에 올라 “술잔을 들어 만수무강을 축원하네(稱彼兕觥 萬壽無疆)”라는 내용은 유교사회 상하간의 통합을 강조하는 정치적인 의미로 통용되어 조선후기에도 국왕과 신하 모두가 선호하는 화제이기도 하였다. 특히 이 부분은 중국 원대 이후에 민간에서는 노인의 장수를 축원하는 축수화로도 받아들여졌다는 점이 주목된다.<sup>21</sup>

### Ⅲ. 조선 전기 기록상의 빈풍칠월도의 작례

조선시대의 《빈풍칠월도》는 조선 전기에 궁중에서 매우 중요시한 화제였음을 기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빈풍칠월도와 관련하여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은 1402년(태종2)에 《鬪風圖》를 바친 예조전서 金瞻에게 太宗이 말을 하사한다는 실록의 내용이다.<sup>22</sup> 한편 세종은 1424년, 1433

<sup>19</sup>倪元璐, 『倪文貞集』卷十七, 鬪風八圖贊爲蔣八公宮庶太夫人壽: 一章 耕鑿 有見冀缺 相敬如賓 一耕一鑿 可以觀人. 二章 求桑 此弱女子 西陵功臣 中裏衣被 下教絲綸. 三章 載績 敬姜勗勤 漆室懷本 得其道者 彰施補袞. 四章 績武 獵武多功 獵文多藻 不如獵德 獵德難老. 五章 室處 智足遠患 道在持盈 入此室處 是以攸寧. 六章 介壽 雙成奏笙 飛矯擊缶 胡麻青精 何如春酒. 七章 播穫 穫播相環 貞盡元起 甲子十周 周又復始. 八章 鑿冰 藏冰啓冰 陰陽道淡 請進一觥 坐觀調燮. 『(景印)文淵閣四庫全書, 集部, 別集類 1297冊 (驪江出版社, 1988), pp.206-207.

<sup>20</sup>명대화가 謝時臣(1487-1557)의 《鬪風圖》(臺北故宮博物院 소장)에는 칠월 시 중의 ‘九月授衣’ 장면이 강조되어 묘사된 점이 특징이다. ‘구월수’는 9월에는 날이 추워지므로 따뜻한 옷을 준비한다는 의미이다. 중국에서 천자는 10월에 겨울옷으로 갈아입고, 옷을 덧입는 풍속이 있었으며, 송나라 황제는 하늘의 때에 순응하기 위하여 시월사 이면 ‘授衣’ 의례를 지냈다고 한다. 날이 추워지면 변방이나 멀리 떨어져 지내는 가족에게 겨울 옷을 보내는 풍습이 있었으며, 돌아가신 고인에게도 겨울옷(紙衣)을 해보내는 풍속이 있었다. 蕭放, 『중국인의 전통생활풍습』(국립민속박물관, 2006), pp.320-331.

<sup>21</sup>광동성박물관소장 《빈풍도 칠월》도 축수화로 제작된 예 중의 하나로 청대까지도 이러한 회화제작의 관습이 지속되었음을 알려준다. 郭伟其, 『潮汕의《鬪風七月》圖』, 『汕頭大學學報』第25卷 第3期(2009), pp.88-92.

<sup>22</sup>정병모, 앞의 논문, p.19.

년(세종6, 세종15)에 『시경』의 빈풍편을 모방하여 우리나라의 풍속을 바탕으로 한 조선식의 빈풍 칠월도를 제작하도록 하였다.<sup>23</sup> 세종은 중국의 빈풍칠월도를 백성들의 농사짓는 어려움을 알게 해주는 감계화로서 인식하였으며, 조선의 풍속을 채집하고 형상을 그리라고 지시하면서 그것을 “우리나라의 칠월시(我國七月之詩)”라고 지칭하였다. 또한, 1438년(세종20)에 천문관측기구를 설치한 欽敬閣을 세우면서 빈풍칠월도에 의거하여 전각 내부에 사계절의 경치를 꾸며놓기도 하였다.<sup>24</sup> 흥경각 안에는 산중의 물길을 본떠 물이 흐르도록 하고, 해가 뜨고 지며 오색구름이 움직이며 산을 휘감아 돌고, 일정한 시간이 되면 인형이 목탁을 치고, 동서남북의 四神과 하루 중의 시간을 가리키는 十二支神이 자동으로 움직이도록 고안되었다. 이 중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의 재현의 근거를 시경의 빈풍편에 두고, 사계절의 경치를 꾸미고 나무를 깎아 人物, 鳥獸, 草木의 형상을 만들었다(도 10). 빈풍칠월도가 한 해(歲時)라는 순환되는 시간성과 지상의 동서남



도 10 흥경각루 내부 복원도 (삽화: 안영진)

<sup>23</sup> 『世宗實錄』 권26, 6년 11월 15일(丙戌), “且周公豳風之詩, 無逸之書, 亦可以鑑, 然本土之俗, 異於中國, 欲民間稼穡艱難, 徭役疾苦, 逐月作圖, 仍述警戒之語, 以便觀覽, 庶傳不朽”; 『世宗實錄』 권61, 15년 8월 13일(癸巳), “欲倣豳風採我國風俗, 圖形贊詩, 使上下貴賤皆知農務之重, 傳之後嗣, 永世監觀. 惟爾集賢殿博採本國貢賦徭役農桑之事, 圖其形狀, 仍贊以詩歌, 以成我國七月之詩”; 정병모, 위의 논문, pp. 28-29 부록의 표 참조; 정병모, 『한국의 풍속화』 (한길아트, 2000), pp. 125-126.

<sup>24</sup> 『世宗實錄』 80卷, 世宗20년(1438, 戊午) 1월 7일(壬辰), 3번째 기사, “(略)依《豳風》之圖, 刻木爲人物鳥獸草木之形, 按其節候而布之, 《七月》一篇之事, 無不備具. (略)山之四方, 陳《豳風》, 以見民生稼穡之艱(略)”

북의 공간에서 펼쳐지는 백성들의 생활상을 담은 시각적 표상의 전거로 인식되고 중요시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欽敬은 하늘을 본받고 때에 순응한다는 의미이다. 빈풍칠월도에 의거하여 재현된 백성들의 생업에 열중하는 모습은 하늘이 부여한 때에 순응한 결과이자 유교정치철학에서 이상으로 삼는 바른 정치의 표상이었다. 농가의 풍속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인 조형물을 만들어 빈풍칠월도를 재현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는 농가의 풍속을 그린 시각 이미지인 빈풍칠월도에 풍농을 기원하는 농경의례가 갖는 제의적 기능을 부여하였음을 의미한다.<sup>25</sup>

또한 조선왕조실록에는 內農作이 빈풍칠월의 일을 본떠 만든 것이라는 기록이 상당히 많이 전한다.<sup>26</sup> 내농작은 정월대보름에 풍년을 기원하던 궁중의 세시 농경의례로 궁중의 후원에서 승정원의 주관으로 실시되었다. 후원에 대나무와 풀 등으로 농사일을 꾸몄으며, 밭갈이 하는 농부, 누에치는 여인 등 인형으로 농사하는 형상을 재현하였다. 이는 한 해의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밭갈이, 씨뿌리기, 모심기 등을 미리 함으로서 풍농을 기원하는 주술행위이다.<sup>27</sup> 우리나라는 주로 민간에서 정월 대보름에 다양한 예축적 농경의례를 행하였다. 내농작과 관련하여 세조는 1463년(세조9년) 후원에서 승정원에서 좌우로 나누어 베풀어진 農蠶의 형상을 구경하였다고 하고, “세속에서는 해마다 上元에 田家에 農蠶의 형상을 베풀어 한 해의 풍년을 조짐으로 삼았다”, “보습으로 밭을 갈고, 뽕나무 가지로 누에를 기르며 老幼가 醉飽하는 형상부터 禽獸, 草木의 형태까지 모두 대나무를 세워 줄기를 삼고 풀을 묶어 형상을 만드니, 각각 다 그 형태를 다하지 않음이 없었다”고 한다.<sup>28</sup>

내농작과 관련하여 가장 이른 기록은 1463년(세조9)의 일이며, 1524년(중종9)의 기록은 내농작이 빈풍칠월도를 근거로 하여 형상화하였음을 말해준다.<sup>29</sup> 또한 중종은 1527년(중종22)과 1535년(중종30)에 내전에 소장된 빈풍칠월도 병풍을 보고 놀이로 만들어 나례 의식이 끝나고 잡희를 공연하도록 연습하라고 지시하면서, 그 놀이의 설행도 빈풍칠월도를 그리는 뜻과 같다고 하

<sup>25</sup> 김현지, 『조선 후기 歲時風俗圖와 市井風俗圖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5), pp.63-66.

<sup>26</sup> 김현지, 위의 논문, pp.66-69.

<sup>27</sup> 우리나라는 주로 민간에서 정월 대보름에 다양한 豫祝의 농경의례를 행하였다. 벼가릿대도 풍년이 들어 벼단이 높이 쌓인 모양을 미리 만들어 풍년을 미리 축하함으로서 현실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주술적인 행위이다.

<sup>28</sup> 배영동, 『궁중 내농작과 농가 내농작의 의미와 기능』, 『세시풍속의 역사와 변화』(민속원, 2010), pp.196-196.

<sup>29</sup> 『中宗實錄』 권60, 中宗22年(1527) 12월 12일(乙卯), 臺諫啓前事. 憲府啓曰, “近來凶荒, 明春必爲尤甚. 內農作, 雖欲知民間勤苦, 然弊多, 而近於戲玩, 請停之. (略) 傳曰: “內農作, 雖近於戲, 然皆象《豳風七月圖》, 使知民間疾苦. 自祖宗朝爲之者, 良有以也. 往在甲戌年爲之, 近久不爲, 若於明年則將至十五年廢之矣. 在子則似不關矣, 但世子一不見之, 民間疾苦, 宜於年少時知之, 命以中例爲之. (略)”

였다.<sup>30</sup> 농사 모습을 입체적으로 재현함으로써 풍년을 기원하는 세시 농경의례가 궁중에서 행해졌으며, 이 과정에서 빈풍칠월도가 내농작(모의농작) 재현의 정당성과 시각적 준거의 틀로서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31</sup>

민간에서의 빈풍칠월도의 이른 작례 중에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金安國(1478~1543)의 제화시이다. 『慕齋集』의 「耕圖補遺」에 祈報, 社飲, 藏水 세 개의 제화시를 남기고 있는데, 모두 세시 농경의례와 관련된 주제로서 주목되며, 조선 초기에 이러한 주제의 그림이 그려졌다는 것은 그동안 주목하지 않은 내용이다. 특히 그 중에 ‘장빙’은 시경 빈풍편 칠월시 8장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sup>32</sup> 두 번째로 權擘(1520~1593)의 『習齋集』에 실린 「題幽風七月圖八首」에는 8개의 제화시가 실렸는데, 순서대로 살펴보면, 이른 봄 농기구 수리(造田器), 밭갈이(耕田), 제묘(祭廟), 솥캐기(采蓂), 뽕잎따기(采桑), 벼수확(納禾稼), 봄술로 노인대접과 가옥수리(稻春·屋治), 얼음 깨서 창고 보관(鑿氷)으로 빈풍칠월시 중에 8개의 장면을 골라서 이른 봄부터 겨울까지의 시간상의 순서로 배치된 8폭의 그림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sup>33</sup> 16세기에 그려진 8폭의 빈풍칠월도가 송대

<sup>30</sup> 『中宗實錄』 권60, 中宗22년(1527) 12월 23일(丙寅), “觀儺時, 令呈才人, 陳民間疾苦及救荒節次, 公債斂散等狀. 且內農作, 雖象幽風七月圖爲之, 然豈能曲盡其狀乎. 幽風七月, 乃周公所陳, 備載稼穡之艱難. 子欲詳觀, 須一做七月圖, 詳備爲之. 此後, 永爲恒式.”; 『中宗實錄』 권80, 中宗30년(1535) 10월 15일(癸卯), 以義禁府儺禮單子, 下于政院曰: “單子中雜戲, 有可減者, 有可加者. 此乃祖宗朝所爲之事. 畫幽風七月, 周公所以使人君, 知稼穡之艱難也. 今戲爲農作養蠶, 亦似做此. 內藏畫屏, 有畫幽風七月圖者. 儺禮畢後, 別無所爲之事, 欲使做此爲戲. 自七月流火, 至牽章之鑿氷冲冲, 使之預習.”

<sup>31</sup> 김현지, 앞의 논문(2015), pp. 76-78.

<sup>32</sup> 金安國, 「耕圖補遺」祈報, 社飲, 藏水, 『慕齋集』 권7; 慕齋集卷之七 詩 耕圖補遺. 祈年獲靈畷 禾稼如坻京 鷄肥豚又膾 酒清黍稷馨 野垌禮縱跡 報謝罄中誠 洋洋神降祥 歲歲充稻航. 右祈報. 小大瘡東作 西成富收獲 終歲苦矻矻 能無一日樂 社酒溢盎盎 歌呼咸老弱 醉舞踏月散 歡聲連籬落. 右社飲. 農功既告訖 穡事無餘力 窮冬氣閉沍 寒谷層氷積 冲冲鑿未易 寧厭公家役 疑陰變錫陽 豐穰歲無忒. 右藏氷; 진홍섭 편저, 『韓國美術史資料集成(2)-朝鮮中期 繪畫篇』(일지사, 1991), p. 222; 김안국 저, 류정기 외 역, 『慕齋先生全集』(모재선생기념사업회, 1990), p. 596의 국역을 참고하여 새로 고친, 〈耕圖〉라고 지칭하였으나 題詩의 내용상 빈풍 칠월 시와 관련된 그림으로 추정된다.

<sup>33</sup> 權擘, 「題幽風七月圖八首」, 『習齋集』 권1; 習齋集 卷之一 詩 題幽風七月圖 八首. 歲律鳴笳鳳 農功造土牛 將身趨稼穡 作意理鉏耰 事豫終無廢 心動自不休 佇聞啼布穀 携器就西疇. 右造田器. 屋角花千樹 村前雨一犁. 苗畝耕必早 畛隰耨須齊 共識田官喜 還分饋婦齋 辛勤忘倦惰 白日已沈西. 右耕田. 鬱鬱杉松密 深深廟宇清 豆籩渾整潔 袍笏極齊明 事以開水告 儀因薦韭成 彤庭駿奔罷 猶聽珮環聲. 右祭廟. 日暖蚕初浴 蓂生葉正肥 原頭纔采來 野外已祁祁 入掬柔粘指 盈盞潤着衣 隔林聞語笑 相伴執筐歸. 右采蓂. 陌上千條遠 堂中萬箔連 葉稀經再摘 蚕老入三眠 會取筠籠滿 行看瓮蘭圓 有金應不顧 紡績意方專. 右采桑. 秋日三農熟 天風百須香 鎌磨新月白 稻割亂雲黃 秉穗多遺滯 坻京有積倉 幸逢官稅薄 燕樂或無荒. 右納禾稼. 滌地休秋穫 調帖急暮春 酒清神可賽 飯饅滑老先 供樂飽期終 歲迎寒念禦冬 葺廬須勿緩 春及又從農 右春稻治屋. 朔吹寒方烈 陰水凍已牢 闌干連澤國 皓白映山阜 採斫千人聚 藏收百尺高 廟堂調變重 趨役不辭勞. 右鑿氷; 진홍섭 편저, 『韓國美術史資料集成(4)-朝鮮中期 繪畫篇』(일지사, 1998), pp. 421-422 참조.

이후 회권으로 그려진 빈풍칠월도의 화제와 거의 동일 하면서도 '祭廟'라는 화제가 있는 것이 특징인데, 앞서 살펴본 김안국의 제화시와 마찬가지로 제사나 세시농경의례와 관련된 그림이 조선 전기에는 다양하게 그려졌다는 것을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8폭으로 구성된 월령식의 빈풍칠월도가 16세기 후반에 이미 조선에 수용되어 있었음을 알려 준다.<sup>34</sup>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崔錫鼎(1646~1715)이 1696년에 지은 幽風圖詩 2수이다. 숙종이 명대 궁정화가 왕세정의 〈幽風圖〉 2폭을 얻고 최석정에게 명하여 시를 지어 바치게 한 것이다.<sup>35</sup> 題詩의 내용을 통해 볼 때, 한 폭은 빈풍 '칠월' 시의 제7장과 제3장을 도해하고, 다른 한 폭은 '칠월' 시의 제4장과 제8장을 도해한 것임을 알 수 있다.<sup>36</sup>

위에서 살펴본 16세기 전반, 16세기 후반, 1696년의 빈풍칠월과 관련된 제화시 중에 공통된 요소인 칠월시 제8장의 '얼음 깨서 창고 보관하기'와 관련된 제화시를 살펴보고자 한다.

藏氷

農功既告訖 한 해 농사는 이미 끝이 났지만,  
 穡事無餘力 농사일은 쉴 사이가 없는 거라네.  
 窮冬氣閉沍 嚴冬에는 기운이 닫혀 얼어버리니,  
 寒谷層氷積 寒谷에는 얼음이 두껍게 쌓였구나.  
 冲冲鑿未易 탕탕 얼음 깨기 쉽지는 않으나,

<sup>34</sup> 앞서 살펴본 대로 세종대(1424년, 1433년)에도 조선의 풍속을 반영한 빈풍칠월도를 제작하라는 왕의 명이 있었지만 빈풍 칠월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을 몇 폭으로 그린 것인지, 조선의 풍속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인지, 월령식으로 구성된 것인지 등에 대한 여부를 알 수 있는 정보가 현재로서는 없다. 중국의 빈풍칠월도 중에서도 월령식으로 화폭이 구성된 것은 기록상 늦어도 명대에는 제작된 것으로 추정될 뿐이며(명대 왕세정의 빈풍도, 아래 각주 35, 36의 내용 참조), 명대에 제작된 월령식 빈풍칠월도 병풍의 작례도 현재까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앞서 살펴본 명대 예원로의 제화시 제목을 보아도 월령식이 아니라 각 장의 순서대로 한 장면씩 선택하여 묘사하는 송대 이후 빈풍칠월도 회권의 구성 방식을 따르고 있다(각주 19. 참조).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종합해보면, 아마도 명대 이후 빈풍칠월도는 여러 화면이 한 세트의 구성되는 병풍, 회권, 화첩의 경우 대개 8면으로 텍스트의 총 8장의 구성 순서를 따르는 방식(이 경우에도 원대 왕진봉의 예와 같이 텍스트에서 언급된 모든 장면을 한 화면에 다루는 경우와 송대 회권의 예처럼 대표적인 한 장면씩을 골라서 8면을 이루는 경우로 나뉜다)과, 월령식으로 재배열한 구성방식, 혹은 한, 두 장면을 조합하여 단독작품으로 제작하는 방식 등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sup>35</sup> 『肅宗實錄』 권30, 22년 12월 30일(壬子): 김영옥, 앞의 논문, pp. 18-19.

<sup>36</sup> 崔錫鼎, 『幽風圖詩 二首』, 『明谷集』(1696년); 『明谷集』卷之五 詩. 文衡錄丙子制閣後所錄 時帶文衡. 幽風圖詩 二首 奉教撰授進 有筭見文稿. 場圃綿綿徑隱分 眼中禾稼捲黃雲 長鎌短笠紛相並 豕豕芻羊白一群 傍岸樵蘇遙可辨 隔窓機杼靜疑聞 不緣畫手留心苦 那識田家作力勤. 山蹊暮色雪蒼茫 野獵歸時挾兩狼 剝得臘羔初出釜 籩來春酒正盈觴 滌場收稼何曾歇 乘屋敲氷更許忙 數幅生綃輸乙覽 欲陳王業繼幽章; 김현지, 앞의 논문(2015), pp. 94-95.

寧厭公家役 어찌 나라의 부역을 마다하겠소.  
 疑陰變錮陽 盛陰은 陽을 가두어 변화하게 만드니,  
 豐穰歲無忒 풍년은 해마다 어김없이 들리라. ——— 김안국(1478~1543)

鑿氷  
 朔吹寒方烈 삭풍이 불어 한기가 사방으로 세차고  
 陰氷凍已牢 음기가 엉겨서 얼음이 이미 에워싸고  
 闌干連澤國 가로막은 듯 연이은 하류의 물가에  
 皓白映山皐 하얗게 섰 머리처럼 산 연못을 비추네  
 採斲千人聚 캐고 깎느라 많은 사람들이 모였구나  
 藏收百尺高 창고에 거두어들이면 높이가 백 척은 되겠네  
 廟堂調變重 조정은 調和와 變理를 중히 여기니  
 趨役不辭勞 부역에 나아감에 어찌 힘들다 말하겠는가. ——— 권벽(1520~15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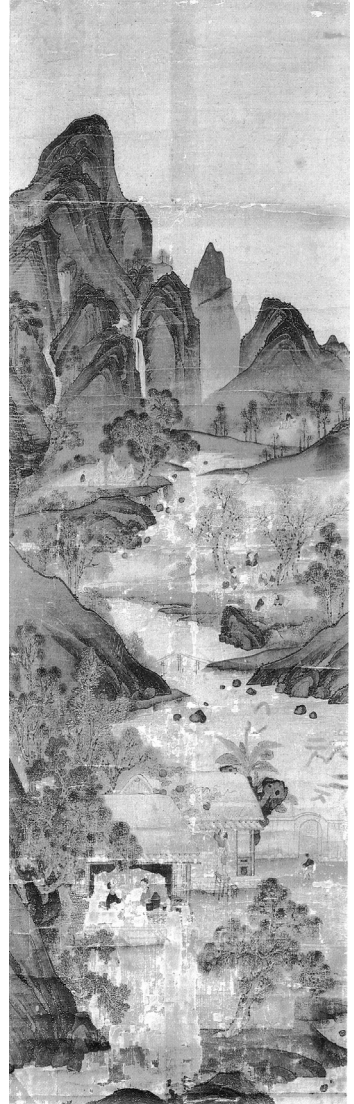
幽風圖詩(第二首, 1696년)  
 山蹊暮色雪蒼茫 좁은 산길 해질 무렵 눈이 와서 아득한데  
 野獵歸時挾兩狼 들판에서 사냥하고 이리를 양쪽에 끼워 돌아오네  
 剝得臘羔初出釜 썰어진 납향에 쓴 양고기를 가마솥에서 꺼내고  
 筍來春酒正盈觴 걸러진 春酒를 술잔에 가득 채우네  
 滌場收稼何曾歇 수확한 마당을 깨끗하게 치우니 어찌 일찍 쉬겠는가  
 乘屋敲氷更許忙 지붕에 올라가 수리하고 얼음을 두드리니 또다시 분주하네  
 數幅生綃輸乙覽 여러 폭의 비단에 그려 새벽에도 살펴보니  
 欲陳王業繼幽章 왕업을 펼치고자 빈풍편을 계승하는 것이라네. ——— 최석정(1646~1715)

김안국은 <경도>의 제화시 ‘장빙’에서 “盛陰은 陽을 가두어 변화하게 만드니, 풍년은 해마다 어김없이 들리라(疑陰變錮陽 豐穰歲無忒)” 고 하였고, 권벽은 <빈풍칠월도>의 제화시 ‘작빙’에서 “調和와 變理를 중히 여기니(調變重)” 라고 하였으며, 최석정은 왕세창 <빈풍도>의 제화시에서 “왕업을 펼치고자 빈풍편을 계승하는 것이네(欲陳王業繼幽章)”라고 하였다. 위에 인용된 鑿氷과 관련된 화제의 시구를 분석해보면, ‘얼음을 탕탕 쳐서 창고에 들이는 행위’ 그 자체는 음양을 조화롭게 다스리기 위함이며, ‘나라의 부역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들어 사회적 관계의 유지

를 음양의 조화와 연결시켜 전개한다. 또한 내년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고 풍년은 곧 태평성세를 상징하므로, 곧 왕업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시가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음양의 조화→사회 질서의 조화→내년 농사의 풍년을 기원→왕업과 연결되는 의미 구조를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다. 옛 사람들이 절기마다 행하는 의례와 행사들은 의식주 생업과 관련된 일상적인 행위이기도 하지만, 특정한 날에 특정한 행위를 하고 특별한 음식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앞으로 공동체에 일어날 결과를 예측하고, 풍년과 복을 기원하고, 왕조의 태평성세를 기원하며, 그 결과에 따르고 보답하는 의미 있는 세시의례 행위였다. 따라서 이러한 특별한 의미를 담은 행위를 시각 이미지로 옮겨놓은 병풍을 의례 공간 혹은 일상의 공간에 둘러치는 것은 그러한 세시 풍속이 지닌 제의적 기능을 그림에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빈풍칠월도는 19세기 세시풍속도 병풍으로 다양한 변주를 하며 이어지게 된다.<sup>3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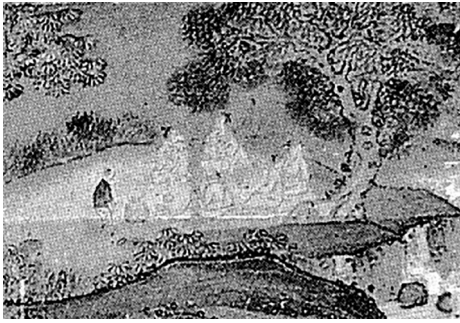
#### IV. 조선 후기 빈풍칠월도 병풍의 구성과 도상적 특징

조선시대에 그려진 〈빈풍칠월도〉는 月令式으로 재편되어 歲時의 시간상의 순서로 재구성된 ‘월령식 빈풍칠월도’의 성격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중국 명대의 영향을 받은 월령식으로 구성된 빈풍칠월도 병풍의 구성을 살펴볼 수 있는 현존 작품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날뚝으로 남아있는 2점의 〈빈풍칠월도〉이다(도 11). (한



도 11 작자미상(傳 宋民古), 〈빈풍칠월도〉, 絹本彩色, 132.4×48.8cm, 국립중앙박물관(『조선시대 풍속화』 특별전 도록, 국립중앙박물관, 2002, p.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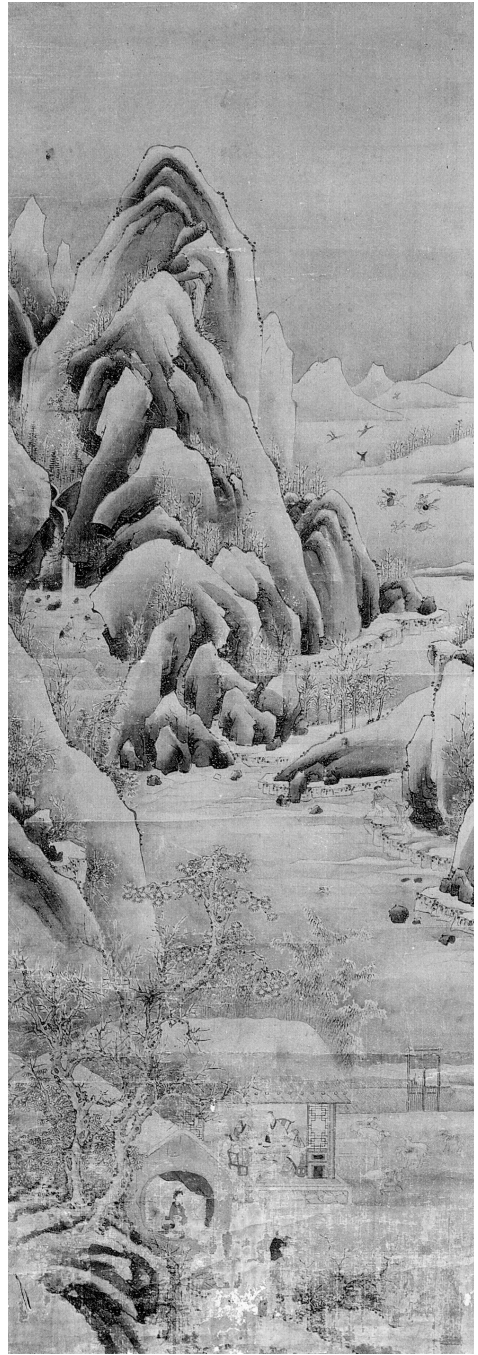
<sup>37</sup> 19세기 세시풍속도 병풍과 관련된 논의는 김현지, 앞의 논문(2013), pp.155-165; 김현지, 위의 논문(2015), pp.106-117.



도 12 작자미상(傳 宋民古), <빈풍칠월도> 부분, 노인  
들의 장수 기원(七月 詩 제6장)



도 14 작자미상(傳 鄭弘來), <빈풍칠월도>, 絹本彩色,  
132×49.3cm, 국립중앙박물관



도 13 작자미상(傳 鄭弘來), <빈풍칠월도>, 絹本彩色,  
132×49.3cm, 국립중앙박물관

동안 宋民古 작품으로 전칭되어 온) 작자미상의 〈빈풍칠월도〉는 늦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를 묘사한 것으로 『詩經』의 빈풍 칠월 시의 제6장의 내용을 묘사한 것이다(도 12). 또 다른 작자미상(傳鄭弘來)의 〈빈풍칠월도〉는 선달인 12월에서 1, 2월로 넘어가는 겨울 장면을 묘사하였다(도 13). 이 장면은 흔히 빈풍칠월도가 병풍 등의 연작으로 구성될 경우 마지막 폭에 그려진다. 칠월 시의 제4장에 실린 12월의 臘祭를 위한 사냥 장면과 제8장의 12월에서 1월 사이의 얼음을 깨서 창고로 옮기는 장면, 그리고 10월의 염소를 잡아 가을 수확에 대해 보답하는 의미의 제사를 지내는 장면을 배치하였다(도 14). 날폭으로 전하는 이 두 작품은 한 세트의 병풍으로 제작된 일부일 수도 있으나, 앞서 살펴본 명대에 축수화로 제작된 문징명의 빈풍도의 경우에도 빈풍 칠월시의 6장과 8장의 축수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제작된 사례를 통해 봤을 때, 이 날폭의 두 그림도 축수화로 독립적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도 7, 8, 9).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빈풍칠월도』 8폭 병풍은 19세기 초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sup>38</sup>

그러나 앞서 살펴본 18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날폭으로 전하는 두 점의 〈빈풍칠월도〉와 거의 유사한 화제와 구성을 하고 있으므로, 제작 시기는 늦춰보지만 더 이른 시기의 월명식 빈풍칠월도의 병풍구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도 15). 따라서 이 8폭 병풍으로 월명식 빈풍칠월도의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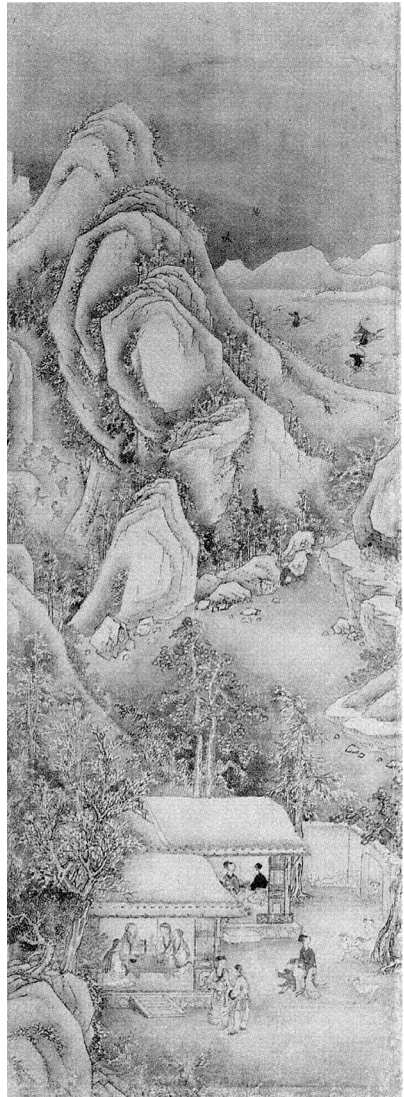
도 15 작자미상, 《빈풍칠월도》 8폭, 19세기, 絹本彩色, 각 135.5×49.4cm, 국립중앙박물관

<sup>38</sup> 이 작품은 2002년 국립중앙박물관의 『조선시대 풍속화』 특별전 도록에 ‘경직도’라고 처음 소개되었다. 이 작품이 박물관의 소장품(덕수4176)으로 등록될 당시의 작품명은 ‘풍속도’였다. 그러나 최근 이 병풍이 회화실에 전시될 때의 명칭도 여전히 ‘경직도’로 소개되었다. ‘빈풍칠월도’라고 정정해야 올바른 명칭이다. 인물의 복식, 머리장식, 건물 묘사 등이 중국 명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이거나 발갈이, 들밥 먹기, 새끼줄 꼬기, 가옥 수리 등의 장면에서 표현방식과 식사시 의자가 아닌 바닥에 앉는 좌식 표현 등에서 조선화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제작시기를 19세기 초(순조대)를 상한으로 잡은 것은 시기를 더 앞으로 당겨볼 만한 근거가 현재로서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작자를 알 수 없는 풍속화의 제작시기를 판명하는 것은 편년을 기준 삼을 만한 작품이 적기 때문에, 특히 어려운 문제이다. 더욱이 그동안 『단원풍속화첩』을 18세기 후반 작품으로 기정사실화 해놓고 단순 비교하여 편년하는 경향이 컸기 때문에 사정은 더욱 복잡하다. 필자는 이 병풍이 인물들의 의복의 윤곽과 채색 기법, 건물 기둥과 기와 골 등의 음영표현 등에서 19세기 전반에 제작된 궁중기록화나 평생도에서 보이는 특징과 더 가깝다고 보았기 때문에 순조대를 제작시기의 상한으로 잡았다.

본구성과 내용을 유추해보는 것이 가능하다.

『빈풍칠월도』 8폭 병풍(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도해 내용을 정리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폭은 칠월 시의 1장의 내용으로 정월의 쟁기 손질, 음력 2월의 밭갈이, 새참 먹는 장면과 권농관이 묘사되었고, 제2폭은 칠월 시 제2장에 해당하는 봄날의 뽕잎 따기, 쑥 캐기가 묘사되었다. 제3폭은 제3장의 3월의 뽕나무 가지치기, 8월의 염색과 바지 만들기, 제4폭은 제1, 2장의 옷감손질과 옷 만들기, 제4장의 8월의 이른 곡식 베기, 제5폭은 제6장의 6월의 머루 따기, 8월의 대추 털기, 박 타기, 10월의 벼 베어 봄 술로 노인들 대접하기, 제6폭은 가옥수리의 장면이 여러 단계로 구체적으로 묘사되었으며, 제7폭은 제7장의 9월의 채소밭에 타작마당 마련, 10월의 곡식 수확, 10월의 새끼 꼬아 지붕 잇기, 제8폭은 역시 앞서 살펴본 대로, 제4장의 12월의 선달 사냥, 제8장 12월, 1월의 얼음 깨서 창고에 넣기, 10월의 염소 잡아 잔치를 벌이는 장면으로 마무리 되었다.<sup>39)</sup>

이 병풍의 도해 내용을 요약해보면, 병풍의 전체적인 구성은 봄에서 겨울로, 정월에서 다시 다음해 정월로 이어지는 순환구조를 보여주며, 마지막 폭의 마무리는 10월 염소를 잡아 잔치를 벌이고 임금의 만수무강을 비는 기원으로 끝을 맺게 된다(도 16, 17, 18, 19).



도 16 작자미상, 《빈풍칠월도》 8폭, 제8폭.

<sup>39)</sup> 이 병풍은 박물관에 소장될 때 편화 상태였고, 2002년 특별전 공개를 준비하면서 새로 병풍으로 만들었다. 물론 당시 이 작품을 〈빈풍칠월도〉가 아니라 '경지도류의 그림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인지, 계절상의 순서가 약간 맞지 않게 배열되었다. 그 순서를 바로 잡았을 때의 제1, 2, 3, 4폭(현재 병풍 구성상의 순서로 1, 2, 3, 5폭)의 인물과 제 5, 6, 7, 8폭(현 병풍의 4, 6, 7, 8폭)의 인물표현 방식이 전혀 다르다. 적어도 인물묘사는 2명의 화가가 앞, 뒤 4폭씩을 나누어 그린 것이다. 인물을 나누어 묘사한 두 명의 화가가 기량의 차이가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작을 한 것은 병풍의 제작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것이다. 김현지, 앞의 논문(2013), p. 152, 각주 27, 28 참조.

제8장의 내용과 제4장의 사냥 장면이 한 화면에 조합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도 17). 가을제사인 秋祭는 원시시대 말기의 臘祭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전통에 기원하기 때문이다(도 18).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정월의 설날(春節)도 그 기원은 납일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납일은 조선시대에 冬至 후 세 번째 양의 날(未日)에 해당하며, 동지는 역법 주기상 한 해의 출발점으로 인식하여 역시 중요시되었다. 납일은 조선시대에 유교문화가 정착되면서 납일의 제사적 기능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납일에 조정에서는 천지만물의 덕에 감사하는 의미로 臘享이라 하여 새나 멧돼지 등을 잡아 종묘사직에 제물로 바치고 제사를 지냈고 일반 백성도 가정에서 제사를 지냈다. 납향제는 장수를 축원하는 술(飲福宴)을 준비하여 친척들을 불러 모아 화합의 잔치를 여는 臘宴의 성격도 지녔다.<sup>40</sup> 농한기인 12월에 군사훈련을 겸한 수렵활동은 오래전부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세시의례와 관련된 행사였던 것이다.

한편 奎章閣 差備待命 畫員의 祿取才 畫門 중 ‘俗畫’ 畫題 중에는 18세기 후반에 제작된 빈풍칠월도에 관한 풍부한 자료가 전하고 있어서 이러한 화제가 단일 화제로도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빈풍칠월편을 전거로 한 화제는 정조와 순조대에 걸쳐서 8회, 헌종에서 고종까지 5회 출제되었다.<sup>41</sup> 이 중에 특히

‘饁彼南畝 田畯至喜, 즉 ‘납향밭 비탈로 밥을 날아오면 권농관은 이를 보고 기뻐한다’는 화제는 칠월편 중 5회 출제되어 가장 많이 출제된 장면이다(도 20). 또한 ‘八月其穫(팔월에는 이른 곡식을



도 17 작자미상, 《빈풍칠월도》 8폭, 제8폭의 부분, 들짐승 사냥(七月詩 제4장)



도 18 작자미상, 《빈풍칠월도》 8폭, 제8폭의 부분, 하단의 연소(七月詩 제8장)

<sup>40</sup> 서금석·박미선, 「조선시대 ‘납일’과 그 기능」, 『진단학회』 122(2014), pp. 89-115; 김현지, 「조선시대 농경의례와 세시 풍속도 병풍의 기능」, 『한국민화』 6호(2015), pp. 54-55.

<sup>41</sup> 강관식, 「규장각 자비대명화원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2000), pp. 488-489.



도 19 작자미상, 《빈풍칠월도》 8폭, 제8폭의 부분, 하단의 만수무강 기원(七月 詩 제8장)



도 20 작자미상, 《빈풍칠월도》 8폭, 제1폭의 부분, 새참의 만수무강 기원(七月 詩 제1장)

벤다네), ‘十月納禾稼(시월엔 곡식을 거두어 들인다네)’, ‘躋彼公堂 稱彼兕觥(임금님의 처소로 올라가 술잔을 드린다네)’ 등의 화제가 반복해서 출제되었다.<sup>42</sup>

정약용은 초계문신으로 정조의 경서 강의에 참여하였고 1791년 이를 정리한 것이 『시경강의』이다.<sup>43</sup> 『시경강의』의 빈풍 칠월 시 중에서 “공당에 올라가 소뿔잔을 들던 禮는 해마다 이와 같이 했던 것인가?”라고 묻는 정조의 질문에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周나라의 국운이 팔백년인데 그 터전은「七月」시의 마지막 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sup>44</sup>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제8폭 중 하단의 마지막 장면을 10월 계절제로 마치고 것은 추수를 마치고 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42 위의 논문, pp. 204-205; 김현지, 앞의 논문(2013), p. 147의 <표2> 참조.

43 『與猶堂全書』第二集 經集 第十八卷 詩經講義 卷二, 關, 七月: 躋堂稱觥之禮. 每歲如此歟. 是必爾俗眞率. 其始以忠愛之心. 民自爲之. 而爾君受之. 後世遂以爲常禮也. 臣對曰君門如海. 夏畦遼隔. 而上下之情. 於是乎不通. 臣謂周祚八百. 其基址在七月詩之卒章. 孔叢子亦云於七月. 見爾公所造周者此也. 詳其語脈. 恐是歲以爲常者. 蓋霜露旣降. 場圃旣滌. 殺羊釃酒. 躋堂稱壽. 讀之令人不禁忠愛之藹發. 詩之感人. 有如是矣. 後世上君白玉堂. 倚君金華省. 較之躋彼公堂. 其淳漓誠僞. 何如也.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검색)

44 정조: “공당에 올라가 소뿔잔을 들던 禮는 해마다 이와 같이 했던 것인가? 이는 반드시 빈나라의 풍속이 진솔하여 그 처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행하고, 빈나라 임금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후세에 마침내 常禮로 굳어지게 된 것인가?”

정약용: “신은 대답합니다. 軍門(京城)은 바다처럼 넓고 한여름 밑에서 농사짓는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상하의 정이 이에 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신은 周나라의 국운이 팔백년인데 그 터전은「七月」시의 마지막 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그 어맥을 살펴보면 아마도 해마다 정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개 서리와 이슬이 내리고 타작 마당을 쓸고 나서 양을 잡고 술을 길러 당에 올라가 獻壽잔을 올렸을 것입니다. 이것을 읽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충성과 사랑이 애연히 말하는 것을 금지 못하게 합니다. 시가 사람을 감동시킵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후략)”; 정약용 저, 실시학사 경학연구회 역주, 『역주 시경강의』 3권(사암, 2008), p. 111 참조.

지내고 공동체 간의 잔치를 하며 결속을 다지는 부분이기 때문이다(도 3, 9, 19). 이 부분을 마지막에 배치한 것은 위계화된 유교사회에서의 구성원들이 화합하고 왕업을 칭송하는 유교적 이상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정약용이 칠월 시의 마지막 장이 주나라 왕업의 터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본 이유도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시경』은 그 경서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조선시대 내내 논란이 지속된 경전이다. 『시경』에 실린 시들을 보는 견해는 크게 성현들이 정치적 교화를 목적으로 지은 현실풍자시가 주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공자의 시경학)와 일반 백성들의 진정성과 심미적인 감정을 담은 민요의 성격을 부각하는 견해(주자의 시경론)로 크게 나누어진다.<sup>45</sup> 정조와 정약용의 시경관은 전자인 공자의 시경학과 한대 시경학의 계통을 이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약용은 『시경강의』에서 시 속에서 봉건질서의 유지와 왕권의 강화를 위한 정치 윤리상의 교훈을 찾고자 한 것이다.<sup>46</sup> 정약용이 '칠월' 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8장에 있다고 했듯이, 빈풍칠월도가 병풍으로 옮겨질 때 이 부분은 가장 마지막 화폭에 배치되었으며(도 16), 단독으로 그려질 때는 축수연의 주제가 되기도 하였다(도 7).

## V. 맺음말

『시경』 경전의 내용을 도해한 <시경도>는 중국 육조시대 4세기부터 그려진 기록이 있어서 그 기원이 오래됨을 알 수 있다. 시경도는 중국 송대 이전부터 『시경』의 삼도로 그려지기 시작하다가 이후 점차 빈풍(칠월)도가 『시경』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발전하며 단독 화제로도 성행하였다. 송대 형성된 삼도로서의 시경도의 전형성은 명대, 청대에도 계속 모사되면서 전통으로 지속되는 한편, 또 다른 한편으로 원대 이후로는 문인층이 빈풍칠월도 중 축수연, 수의와 같이 일부 단일 장면을 선택하여 제작하는 것이 성행하였다. 특히 빈풍칠월 중의 단일화제가 민간에서 축수화로 기능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조선시대 전기부터 제작된 빈풍칠월도는 농민들이 벼농사를 짓고 부녀자들이 길쌈을 하는 구체적인 생활상을 그린 풍속화로 인식되어 궁중에서 감계화로 주로 병풍의 형태로 만들어졌다. 조선전기에는 현존하는 작품은 없으나 기록을 통하여 빈풍칠월도가 궁중에서 매우 중요시된 화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위정자에게 농사짓는 백성의 고단함을 알게 한다는 무일정신을 담

<sup>45</sup> 김흥규, 『조선후기의 시경론과 시의식』(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sup>46</sup> 정약용 저, 실시학사 경학연구회 역주, 앞의 책(해제), p. 12 참조.

은 궁중의 감계화로서의 기능을 겉으로 표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경』의 유교경전으로서의 권위를 빌어 국가의 농경의례의 당위성을 지지하고, 풍농을 예측하며 기원하는 제의적 기능이 한층으로 작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선후기에는 이러한 기능에 더하여 사회 구성원간의 통합과 왕업을 칭송하는 정치적 기능과 壽福을 축원하는 길상적 기능까지 가지면서 빈풍칠월도는 다양하고 풍성한 의미를 내포한 화제로 발전하였다고 생각된다.

빈풍칠월도는 구성에 있어서 시경 빈풍편 칠월 시의 제1장부터 제8장까지의 내용으로 텍스트상의 순서를 증시한 방법과 이를 정월에서 12월까지의 시간 순서로 재배열한 월령식 구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중국 송, 원대의 도상으로 구성된 회권은 주로 텍스트 순서의 구성을 보여주며, 앞서 살펴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원대 왕진봉 그림의 청대 모사본인 〈빈풍칠월도〉 회권과 조선후기 이방운의 〈빈풍칠월도〉 화첩은 텍스트의 순서를 더 증시한 전형적인 구성의 예이다(도 5, 6). 또한 경직도가 경도와 직도로 나누어 작업 공정의 순서를 자세히 도해하는 것이 목적인데 반해서, 빈풍칠월도는 일 년 중의 세시 의례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발달한 화제이다. 조선시대에 월령식의 병풍 구성으로 정리되고 성행한 빈풍칠월도의 화제는 기록으로 전하는 숙종대 1681년의 〈農家十二月圖〉 병풍의 궁중제작으로 이어지며, 다시 19세기 민간에서 새로운 세시풍속장면이 다수 추가되면서 8폭, 10폭, 12폭 등의 〈세시풍속도〉 병풍의 제작으로 발전해갔던 것이다.

**\*주제어(key words)** 詩經 (*The Book of Odes*), 毛詩 (Mao's edition of *the Book of Odes*), 豳風七月圖 (Illustrations of "Seventh Month" from the *Odes of Bin*), 月令歌 (Wollyeongga: poems chronicling the annual cycle of activities in the country side), 歲時風俗 (Annual cyclical rituals and seasonal customs), 內農作 (Naenongzak: a folk invocational ceremony for good harvest), 風俗畫 (Genre painting), 鑑戒畫 (Didactic painting), 祝壽畫 (Painting commemorating longevity)

■ 투고일 2017년 6월 1일 | 심사개시일 2017년 6월 19일 | 심사완료일 2017년 7월 17일 ■

## 참고문헌

### 1. 사료

『慕齋集』  
『夢梧集』  
『四佳詩集』  
『習齋集』  
『承政院日記』  
『詩經』  
『弇州續稿』  
『倪文貞集』  
『朝鮮王朝實錄』  
『欽定石渠寶笈三編』

### 2. 한국어 문헌

강관식, 『奎章閣 差備待令 畫員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0.  
국립중앙박물관 편, 『조선시대 풍속화』 특별전 도록, 국립중앙박물관, 2002.  
김영옥, 『조선시대 王室 鑑戒畫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12.  
김지영, 『英祖代 親耕儀式의 거행과 『親耕儀軌』』, 『한국학보』 107, 2002.  
김현지, 『조선 후반기 세시풍속도 연구』, 『역사민속학』 43호, 2013.  
\_\_\_\_\_, 『조선 후기 歲時風俗圖와 市井風俗圖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_\_\_\_\_, 『조선시대 농경의례와 세시풍속도 병풍의 기능』, 『한국민화』 6호, 2015.  
배영동, 『궁중 내농작과 농가 내농작의 의미와 기능』, 『세시풍속의 역사와 변화』, 민속원, 2010.  
샤오팡(蕭放), 『중국인의 전통생활풍습』, 국립민속박물관, 2006.  
서금석·박미선, 『조선시대 ‘납일’과 그 기능』, 『진단학회』 122, 2014.  
정병모, 『幽風七月圖流 繪畫와 朝鮮朝 後期 俗畫』, 『考古美術』 174, 1987.  
정양용 저, 실사학사 경학연구회 역주, 『역주 시경강의』, 사암, 2008.  
이옥, 『조선시대 친경례(親耕禮)의 변천과 그 의미』, 『종교연구』, 2004.  
홍선표, 『朝鮮時代 風俗畫 發達의 理念的 背景』, 『風俗畫』韓國의 美 19, 1985.

### 3. 동양어 문헌

故宮博物院 編, 『故宮博物院藏品大系. 绘画編: 第2卷 宋』, 北京: 紫禁城出版社, 2008.

古原宏伸, 「詩經圖と孝經圖」, 『美術史』72, 東京: 美術史學會, 1969.

谷口義介, 「豳風七月の社會」, 『東洋史研究』37(4), 1979.

郭伟其, 「潮汕的《豳风七月》图」, 『汕头大学学报』第25卷 第3期, 2009.

马迎珺, 「《诗经》文图关系研究」, 南京大学 硕士学位论文, 2014.

苏州博物馆 編, 『中国画家 古代卷 文徵明』, 故宫出版社, 2014.

黎晟, 「马和之《毛诗图》研究」, 上海大学 博士学位论文, 2014.

李杰荣, 「元代重农思想与《豳风图》的创作」, 『农业考古』2015年 第4期, 2015.

### 4. 서양어 문헌

Julia K. Murray, *Ma Hezhi and the Illustration of the Book of Od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Wen C. Fong, *Beyond Representation: Chinese Painting and Calligraphy, 8Th-14th Century*, New York: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92.

## 국문초록

『시경』 경전의 내용을 도해한 <시경도>는 중국 육조시대 4세기부터 그려진 기록이 있어서 그 기원이 오래됨을 알 수 있다. 시경도는 중국 송대 이전부터 『시경』의 삽도로 그려지기 시작하다가 이후 점차 빈풍칠월도가 『시경』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발전하며 단독 화제로도 성행하였다. 송대 형성된 삽도로서의 시경도의 전형성은 명대, 청대에도 계속 모사되면서 전통으로 지속되는 한편, 또 다른 한편으로 원대 이후로는 문인층이 빈풍칠월도 중 일부 단일 장면을 선택하여 제작하기도 하였는데, 특히 민간에서 축수화로 성행하였다는 점은 주목되는 바이다.

빈풍칠월도는 구성에 있어서 시경 빈풍편 칠월 시의 제1장부터 제8장까지의 순서로 텍스트상의 순서를 중시한 방법과 이를 1월부터 12월까지의 시간 순서로 재배열한 월령식 구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중국 송, 원대의 도상으로 구성된 회권은 전체적으로 시간 순서를 고려한 장면을 선택하여 배열하였지만, 텍스트상의 순서를 더 중시하였다.

조선전기에는 현존하는 작품은 없으나 기록을 통하여 빈풍칠월도가 궁중에서 매우 중요시된 화제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위정자에게 농사짓는 백성의 고단함을 알게 한다는 무일정신을 담은 궁중의 감계화로서의 기능을 겉으로 표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경』의 유교경전으로서의 권위를 빌어 국가의 농경의례의 당위성을 지지하고, 풍농을 예측하며 기원하는 제의적 기능이 한층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조선후기에는 이러한 기능에 더하여 사회 구성원간의 통합과 왕업을 칭송하는 정치적 기능과 壽福을 축원하는 길상적 기능까지 더해지면서 빈풍칠월도는 다양하고 풍성한 의미를 내포한 화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조선시대 전기부터 제작된 빈풍칠월도는 농민들이 벼농사를 짓고 부녀자들이 길쌈을 하는 구체적인 생활상을 그린 풍속화로 인식되어 궁중에서 감계화로 주로 병풍의 형태로 만들어졌다. 경직도가 '경도'와 '직도'로 나누어 작업의 순서를 자세히 도해하여 농사일의 어려움과 공정의 복잡함을 설명하는 것이 목적인데 반해서, 빈풍칠월도는 일 년 중의 세시 의례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발달한 화제이다. 그동안의 연구는 빈풍칠월도에 그려진 농민의 생활장면에 주목하고 이러한 장면이 조선후기에 발전한 풍속화와 어떠한 연장선상에 있는지 그 연결지점에 주목했다면, 필자는 이러한 그림이 백성의 일반화된 일상을 그린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의미 부여된 특별한 날의 행위를 그린 것이며, 이는 세시의례의 제의성과 연관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옛 사람들이 절기마다 행하는 의례와 행사들은 의식주 생업과 관련된 일상적인 행위이기도 하지만, 특정한 날에 특정한 행위를 하고 특별한 음식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앞으로 공동체에 일어날 결과를 예측하고, 풍년과 복을 기원하고, 왕조의 태평성세를 기원하며, 그 결과에 보답하여 제사를 지내는 등 모두 의미 있는 세시의례 행위였다. 따라서 이러한 특별한 의미를 담은 행위를 시각 이미지로 옮겨놓은 병풍을 의

례 공간 혹은 일상의 공간에 둘러치는 것은 그러한 세시풍속이 지닌 제의적 기능을 그림에 부여하고, 그 표상이 다시 현실에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는 기원을 담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빈풍칠월도 병풍은 19세기 세시풍속도 병풍으로 다시 다양한 변주를 하며 이어지게 되었다.

## Iconographic Origin of “Illustrations of “Seventh Month” from the *Odes of Bin*” and Its Functions in the Joseon Dynasty

Kim, Hyunji\*

Pictorial illustrations of *The Book of Odes* have a long history, the earliest written reference dating far back to the fourth century during the Six Dynasties period (220-589) of China. Begun as a visual aid to the text, the illustrations have since the Song dynasty (960-1279) gradually attained a higher status, and prevalence, as an independent painting theme. Such development came along with the emergence of the “Illustrations of “Seventh Month” from the *Odes of Bin*” as a representative image of *The Book of Odes*. It is the case that a typical set of *the Book of Odes* illustrations, seemingly established in the Song period, has persisted through continuous copying until the Ming (1368-1644) and Qing (1644-1912) periods. And yet it is also notable that a few of individual scenes from the “Illustrations” have been selected for a single painting by the literati since the Yuan period (1271-1368) and further interestingly that such a pictorial excerpt prevailed among the common people as a kind of painting that commemorates longevity.

The “Illustrations of “Seventh Month” from the *Odes of Bin*” have two compositional systems at large: one laying stress on the textual order of *The Book of Odes* from the first to eighth chapter; and the other following the Wollyeongga compositional sequence that

---

\* Hongik University

chronicles the annual cycle of activities from the first to twelfth lunar month. Handscroll versions from Song and Yuan China show a fundamental emphasis on the former system, while taking into compositional account the temporal sequence and generally choosing various scenes from the latter.

Even in the early Joseon period, albeit no extant example of the time, did the “Illustrations” themes assume great significance to the royal court, literary evidence suggests. Apparently they served to provide moral instruction that a monarch be mindful of the farmer’s laborious service, a Confucian idea of Non-idleness. On the other hand, the authoritative status of *The Book of Odes* as one of the canonical classics in Confucianism lent an ideological support to agricultural rites and ceremonies that the state practiced as a Confucian monarchy. Also, the “Illustrations” worked as a ritualistic vehicle to celebrate, and to pray for, a year of good harvest. A variety of functional roles that the painting theme have accrued until the late Joseon period enriched the theme with diverse and abundant implications, including a political one to eulogize the righteous kingship and social integration as well as an auspicious to wish for longevity.

Since early Joseon, the “Illustrations” have been produced in the format of folding screen, the formality of which suits a didactic painting that contains such detailed genre scenes of everyday life as male farmers’ activities of rice cultivation and women’s weaving and spinning. In contrast to the Gyeongjik-do (Ch. Gengzhitu: Drawings of tilling and weaving), which is divided into the parts Gyeong-do (Ch. Gengtutu: Pictures of ploughing) and Jik-do (Ch. Zhitu: Pictures of weaving) for the sake of making known the difficulties and complexity of regular farming works by means of presenting an illustrated guide to the order of actions, the “Illustrations of the Seventh Month” have more to do with the annual and seasonal rites. The previous studies have paid more attention on the daily scenes in the “Illustration” and on their relationship with the development of genre paintings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Calling for scholarly attention on the ritualistic nature of the annual rites, however, I will argue that the “Illustrations” are more concerned with a series of activities on a specific day to which special significance is assigned than the general life of the common people.

One may find the seasonal rites and festivals merely a part of an annual routine of the people in the past. And yet on these days of especial importance the people did specific

activities; shared special food; made a collective effort to foresee the future to their community; wished for a rich year and for good fortune; prayed for the peace and prosperity of the ruling reign; and performed ancestral rites in return for benign consequences. All these activities were to observe the seasonal customs and annual rites of enormous significance. In this vein, the act of placement, either in a ritualistic or casual space, of a folding screen onto which the practices of special importance are transferred visually, should be understood as an expression not only to project on the painting a ritual function that the annual rites and seasonal customs have carried out but also to wish the visual representation, in turn, have effect on reality. The “Illustrations” have kept running the course of transformation until the nineteenth century, when the theme’s variation gave rise to another genre, “paintings of annual cyclical rituals and seasonal customs” in the format of folding screen.